

마른침을 삼키며



조 은

명숙은 퇴근길에 꽃가게엘
들렀다.

“어머, 오랫동안 오셨네요!”
“백장미 한 다발 주세요.

안개꽃도 섞어서요.”

열리고 닫힌 꽃송이들을
건네받으며 명숙은 넉넉한
웃음을 흘렸다. 버스를 기다리며
명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발스런 바람이 명숙의 스커트
자락을 붙들고 잠시 멈추었다
사라졌다. 별들은 요란한
사람들의 옷자락에 내려와 묻혀
다니는지 별도 없는 하늘에선
순한 술냄새가 나는 듯 했다.

명숙이 타고 다니는 버스는 늘

만원이다. 가까스로 명숙이 빈
자리에 몸을 앉히자 버스가
출발했다. 버스가 몇 정거장을
통과할 때 꽃에 눈길을 주고 있던
명숙의 미간이 찌푸러지는가
하더니 옆에 서 있는 사내에게로
눈길이 가 닿았다. 명숙은
옆좌석에 앉은 여자에게 몸을
붙이며 온 몸을 자신에게
기대오는 사내를 노려보았다.
사내의 바바리 밖으로 드러난
하얀 와이셔츠가 그의 수려한
얼굴과 조화되어 설경(雪徑)처럼
빛났다.

명숙은 자신이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경계하고 쉽게

불신하는 단면이 남들에게
들키기라도 한 듯 얼굴을 붉혔다.
사내는 누가 보아도 주눅이 들
만큼 품위있는 분위기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명숙은 이내 그런
생각들을 정정하며 다시
이맛살을 찌푸렸다. 어찌나
사내가 명숙에게 기대 오는지
앉아있는 명숙의 머리와 사내의
머리가 거의 포개지다시피 했다.

“아, 이런, 술냄새……”

명숙의 옆자리 여자가
짜증스럽게 사내를 흘겨보며
말했다. 옆자리 여자는 코를 잡고
헉헉거리는 명숙을 안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명숙은

당장 어찌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다가 그 몰염치한 사내와 자리를 바꾸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 그런데…… 명숙의 머리통이 그녀에게 거의 들이박고 있던 사내의 코를 짓찧었다.

“이런 개 같은!!”

“아……”

명숙은 인간의 외모와 내면이 갖는 괴리감에 진저리를 치며 순간적으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내가 명숙의 어깨를 툭툭 치며 뭐라고 계속 짓어댔으나 명숙은, 애써 사내의 말을 한쪽 귀로 흘리며 자신의 불운만 한탄했다.

그러나 명숙의 고난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내가 한쪽 다리를 들어 명숙이 앉은 의자에 비스듬히 걸치는가 싶더니 명숙의 다리와 사내의 다리가 자꾸 부딪쳤다. 스타킹을 통해 느껴지는 낯선 남자의 불쾌한 감촉에 명숙은 진저리를 치며 어쩔 줄을 몰라 화덕 위의 오징어처럼 몸을 오그렸다.

‘재수가 없으려니……’

‘생긴 건 멀쩡한 놈이!’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대체 이 자식이 어디까지 갈 건가. 정말.’하며 우왕좌왕 하던 명숙의 눈빛이 한 순간 콧꽃하게 섰다. 사내에 대한 눈빛이 그녀의 몸을 잠식해서 명숙은 온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이것 보세요, 아저씨!!”

사내가 눈을 허영계 까뒤집으며 명숙을 내려다봤다.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좀 똑바로 서세요!”

커다랗게 갈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스스로 놀라며 명숙이 헉헉거리며 말을 마쳤다.

“내가 네까짓 것하고 하긴 뭘해? 응?”

명숙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심정이었다. 그녀가 할 말을 찾아 머뭇거리는데 사내가 말했다.

“야, 너 앉은 자리에 있다고 서 있는 사람 우습게 보이냐? 이거 원 너 오늘 임자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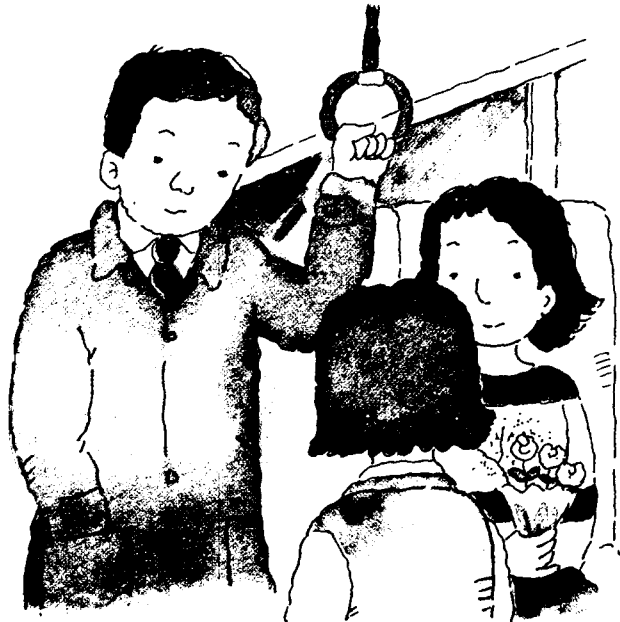
사내의 말은 욕설과 뒤섞인 채 거의 웅변조에 가까워 차 안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댁이 자꾸 몸을 갖다 비비니까 그렇잖아요!!”

고양이 앞의 쥐처럼 다급한 명숙이 내뱉은 ‘비비니까’라는 어감이 이상했던지 몇 사람은 명숙의 면전에서 키득거렸다. 명숙은 망망대해에 홀로 표류하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내 입을 다물었지만, 사내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네년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냐? 어디 얼마나 잘났는지 뜯어보자.”

그쯤에서 차에서 내리고 싶었으나 명숙은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갈 용기가 나질 않았다. 여전히 집요하게 몸을 기대오는 사내에게 떠밀리며 입술을 꼭 깨물고 있는 명숙의 얼굴은 몽개진 꽃처럼



안타까웠다.

“아, 아……”

명숙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간 명숙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사내가 쓰고 있던 안경이 명숙의 어깨에 밀려 겨우 한쪽 귀에 걸린 채 대롱거렸다. 명숙은 그때 사내가 흥기처럼 두렵기도 했거니와, 같은 차에 실려 가면서 남의 일이라고 수수방관하는 승객들이 말할 수 없이 혐오스러웠다. 명숙은 어찌할 바를 몰라 주린 고양이 앞의 새끼취처럼 바들바들 몸을 떨었다.

사내가 안경을 고쳐 쓰지도 않은 채로 명숙을 노려봤다. 명숙은 반은 정신이 나가, 달아나다시피, 사내의 손아귀를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한두 발짝 움직이다 버스 안쪽으로 들어서서 언니인 경숙과 마주쳤다.

“아…… 언니……”

명숙의 눈에서 쏟아져 나온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무슨, 일…… 이냐? 응? 명숙아?”

걱정스럽게 명숙을 쓰다듬던 경숙의 눈이 반짝 빛났다. “어머? 박 선생님 아니세요?” 경숙이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얼른 알아차릴 수 없어 명숙은 눈물을 닦으며 두리번거렸다.

“등을 돌리시기에 박 선생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

“박 선생님과 같은 방향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만나뵙긴 또 처음이네요. 어디서 내리세요?”

순간 명숙이 사내와 경숙의 틈에 끼어들었다. 명숙의 눈빛이 강렬했다.

“언니, 이자식 아는 사람이야? 대체 이자식 누구야?”

“애, 너 이게 무슨 버릇……”

“아는 사람이라고 묻잖아!”

“그래, 너 왜 이러니?”

명숙이 분을 삭이지 못해 팔쩍팔쩍 뛰는데 사내가 허겁지겁 차에서 내렸다. 허둥대는 사내의 그 멀썩한 허우대에 승객들의 시선이 대못처럼 쏘였다.

“언니, 어떻게 아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나? 말해 봐, 저 사람 말이야.”

실새없이 내뱉는 명숙의 손을 잡으며 경숙이,

“우리 회사에 다니다 휴직했어. 머리가 약간……, 술을 마시면 더……, 혹시 너한테?”하고 말했다. 명숙은 그때까지도 경직된 몸을 바들바들 떨며 승객들의 혀를 차는 소리를 까마득히 들었다. ●

